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동정책포럼

불확실성의 시대, 청년의 길을 묻다

일자 2025. 11. 25.(화)

장소 세종국책연구단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동정책포럼

불확실성의 시대, 청년의 길을 묻다

일시 2025. 11. 25.(화) 14:00

장소 세종국책연구단지 A동 대강당

"초불확실성 시대에 대한 통찰"



미래학자 서용석

- KAIST 미래전략연구소 소장
- 2025 <직업의 미래>, 2021 <탄력성장> 등 집필
- EBS '인구대기획', SBS 'D포럼', 세바시 등 출연

생중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튜브 채널

문의처

044-415-5031
gpr@krivet.re.kr

시간	내용
14:00~14:20	개회 국민의례 개회사 고혜원 원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환영사 백일현 원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축사 이한주 이사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달원 실장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14:20~15:25	제1부 기조강연 및 발표 기조강연 대전환 시대의 초불확실성과 새로운 사회계약 서용석 교수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발표 1 교육기대와 청년의 성인기 이행 김기현 본부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본부) 발표 2 경제위기 시기 졸업 코호트의 노동시장 이행과 극복 방안 검토 문상균 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청장년직업능력연구센터) 발표 3 청년의 위기와 청년복지 제도화 김성아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15:40~16:50	제2부 토론 좌장 류장수 교수 (국립부경대학교 경제학과 / 前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토론 김민성 과장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총괄과) 권지영 서기관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김윤지 사무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김문길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이홍 부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산업구조·정책효과분석실) 김유빈 본부장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질의응답
16:50	폐회

※ 위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청년의 길을 묻다

기조강연

대 전환 시대의 초불확실성과 새로운 사회계약 1

서용석 교수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발표 1

교육기대와 청년의 성인기 이행 15

김기현 본부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본부)

발표 2

경제위기 시기 졸업 코호트의 노동시장 이행과 극복 방안 검토 31

문상균 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청장년직업능력연구센터)

발표 3

청년의 위기와 청년복지 제도화 53

김성아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기조강연

대전환 시대의 초불확실성과 새로운 사회계약

서용석 교수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동정책포럼

불확실성의 시대, 청년의 길을 묻다

대전환 시대의 초불확실성과 새로운 사회계약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manoa@kaist.ac.kr



1. 미래전략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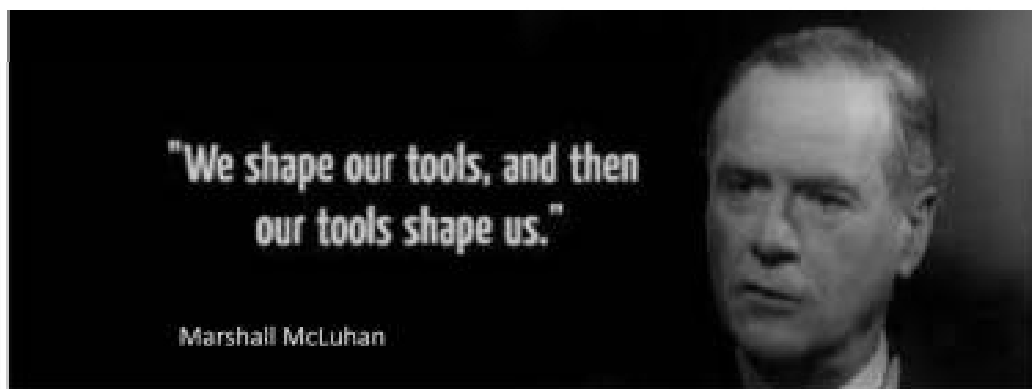
1. 미래전략의 이해

미래전략(Foresight)이란?

미래 연구는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이며,
전략은 변화에 대한 적응과 대응, 관리에 관한 연구이다.

1. 미래전략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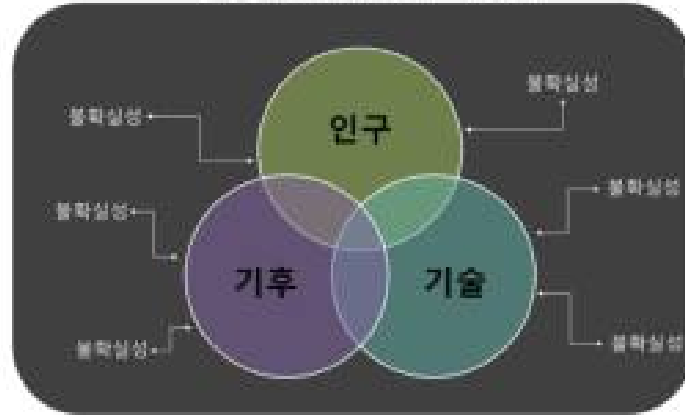
기술 진보는 문명과 사회 변화의 핵심 동인



기술 진보는 기술의 문제에만 머물지 않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회를 운영하는 방식, 인간 존재를 이해하는 틀에까지 영향

1. 미래전략의 이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3대 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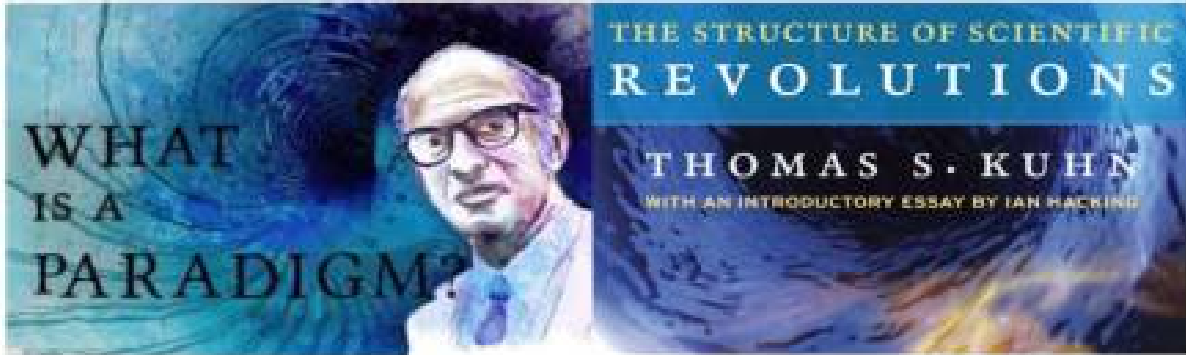


기술, 인구, 기후 3대 구조적 동인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다양한 변화와 불확실성을 견인**

2. 대전환과 초불확실성 시대의 도래

2. 대전환과 초불확실성 시대의 도래

과학혁명의 구조와 패러다임 전환



“과학혁명은 점진적이며 누적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기술적 돌파구(technological breakthrough)’ 에 의해 기존의 공식들이 깨어지는 대사건들로부터 일어난다.”

2. 대전환과 초불확실성 시대의 도래

AI as a Paradigm Shifter?



2. 대전환과 초불확실성 시대의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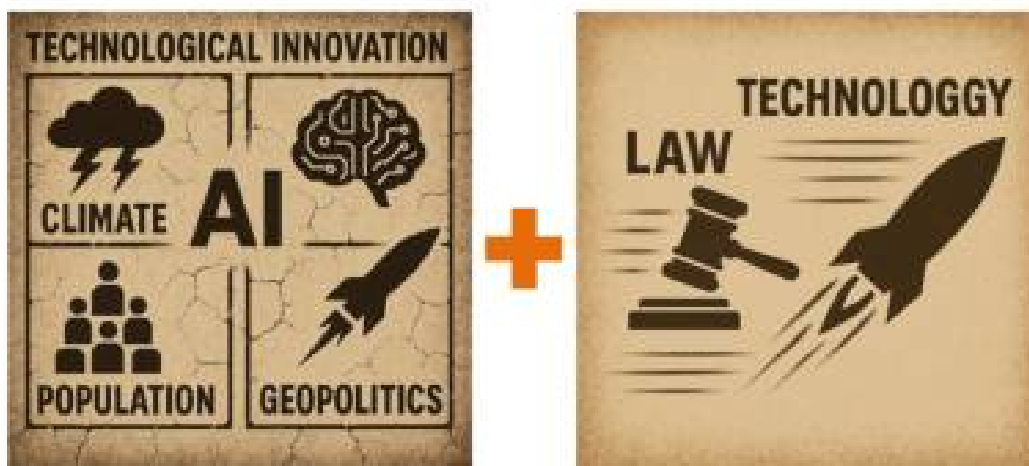
불확실성 증가의 배경



다양한 불확실성의 총합 = 초불확실성(Hyper-Uncertainty)

2. 대전환과 초불확실성 시대의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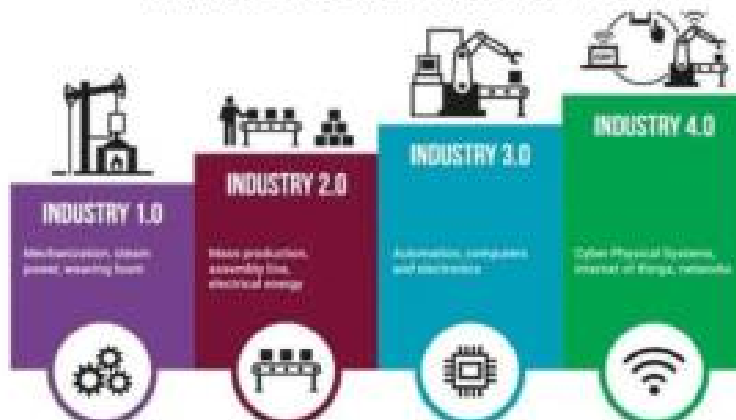
AI 기술 혁신, 기후, 인구, 지정학의 복합 위기와 제도 지체



3. 대전환기, 초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3. 대전환기, 초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4차례의 산업 혁명과 일자리 및 직업의 변화



과거의 기술 및 산업 혁명에서는 직업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존재

3. 대전환기, 초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4차례의 산업 혁명과 직업의 변화



자동차의 등장으로 아무들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새로운 많은 일자리와 직업이 등장



새로운 직무 전환으로의 시간적 여유가 존재



13

3. 대전환기, 초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AI가 견인할 혁명적인 변화와 직업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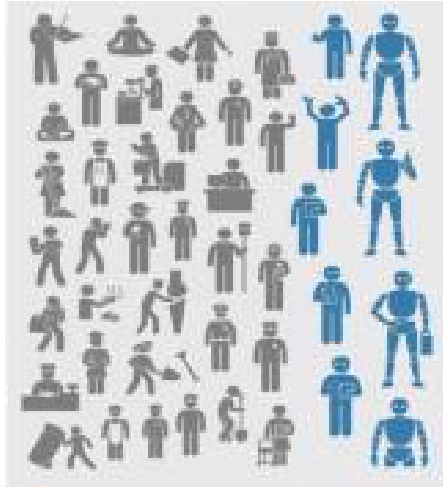
우리가 과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



14

3. 대전환기, 초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AI로 인해 사라질 직업은?



3. 대전환기, 초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AI가 새롭게 창출할 직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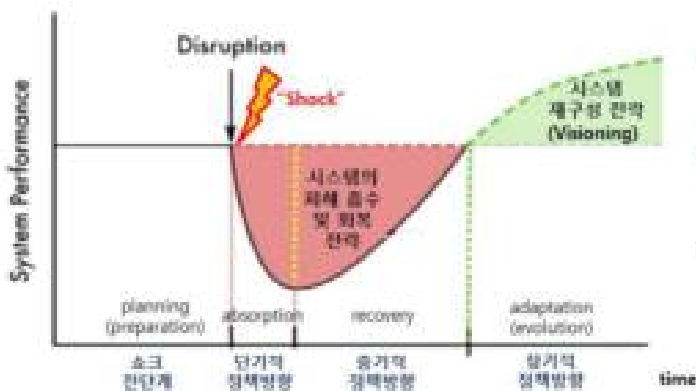


- ❖ AI가 창출할 일자리의 규모는 극히 제한적
- ❖ 높은 기술력과 전문성을 요구해 일부만 접근 가능
- ❖ 그 결과 극소수만이 가치 있는 직업을 독점하고, 대다수의 청년들은 실업과 불평등에 직면
- ❖ AI시대의 고용 창출은 기회가 아닌 불평등의 상징

4. 청년,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

4. 청년,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

초불확실성 시대의 핵심 역량: Agilience (에질리언스)



- ❖ Agile: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전환이 필요할 때 민첩하게 전환
- ❖ Resilience: 실패나 좌절로부터 회복·복원을 넘어 역량을 업그레이드
- ❖ Agilience: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역량

디지털 기술, 데이터 활용, AI 협업 역량 등 새로운 스킬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교육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되 다른 분야와도 융합할 수 있는 유연한 역량 (역량 포트폴리오)

4. 청년,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

윤리적 가치 판단력



- ◆ AI시대에 더욱 중요한 공감능력
-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역량에 대한 수요 증가
- 방향을 제시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결국 인간
- 윤리적, 기술 감수성에 기반한 효과적인 협업, 공감,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4. 청년,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

나 다름

우리는 지금 인간 고유의 특성이라고 여겼던 영역이 하나씩 기계에게 넘겨지는 전환의 시대에 직면
‘인간은 무엇으로 인간일 수 있는가?’ 육체적인 생물학적 기반인가? 의식과 자아의 유무인가?

아니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윤리적 존재로서의 특성인가?

- ◆ ‘나 다름’은 개인의 선택과 경험, 기억과 꿈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이야기
- ◆ 같은 시대, 같은 문화를 살아도 누구나 저마다 다른 삶의 궤적과 해석을 보유
- ◆ 나만의 시선과 개성, 윤리적 책임성을 갖고, 자신 특유의 삶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써 내려가는 역량이야말로, AI가 결코 모방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
- ◆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Personal Branding: 나 자신 특유의 스토리를 브랜드화

4. 청년,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

대전환과 불확실성 시대에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를 재구성



기존 규칙에 순응하지 않고, 규칙 자체를 재정의



4. 청년,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

청년들이 만들어 가는 새로운 사회계약 설계의 방향성



기술에 의존하되 인간을 중심에 두는 사회, 시장을 활용하되 공공의 기반공공성과 접근성 보장을 갖춘 사회,
경쟁을 넘어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



마치며

정해진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

현재 우리가 어떠한 결정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바뀔 수 있으며,**
우리가 미래에 대해 어떠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느냐에 따라 **현재를 바꿀 수 있다!**

변화와 불확실성은 위기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창조와 기회의 원천이다!**

 KAIST

23

감사합니다.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Woon-Sul Graduate School of Future Strategy

발표 1

교육기대와 청년의 성인기 이행

김기헌 본부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본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동정책포럼

불확실성의 시대, 청년의 길을 묻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동정책모임

불확실성의 시대, 청년의 길을 묻다

교육기대와 청년의 성인기 이행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5. 11. 2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시작하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1. 시작하며



01. 시작하며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현황(2003년, 2010년, 2018년)



출처: 허정덕, 김지현, 최연재, 한지형 (2024).

01. 시작하며



출처: 김기현, 김은희, 이종채 (2023), 청년의 성인기 이행 경로 연구: 종결보고서(발간예정)

01. 시작하며



출처: 김기현, 김은희, 이종채 (2023), 청년의 성인기 이행 경로 연구: 종결보고서(발간예정)

2장 고3 시기의 교육기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장 고3 시기의 교육기대

01 아동·청소년패널 조사 코호트 결과 비교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3개 코호트에서 최근으로 갈수록 4년제 대학까지 진학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크게 증가

반면, 고졸 희망자는 2007년 2.9%에서 2015년 7.6%로 증가했으나 2023년 3.1%로 급감, 대학원 역시 크게 감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교육기대 분포(%), 2007/2015/2023년〉



자료: 청소년패널조사(KCYP; 2003) 원자료,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 2010, 2017) 원자료
출처: 김기훈, 오병준 (2024), 2024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성인기 이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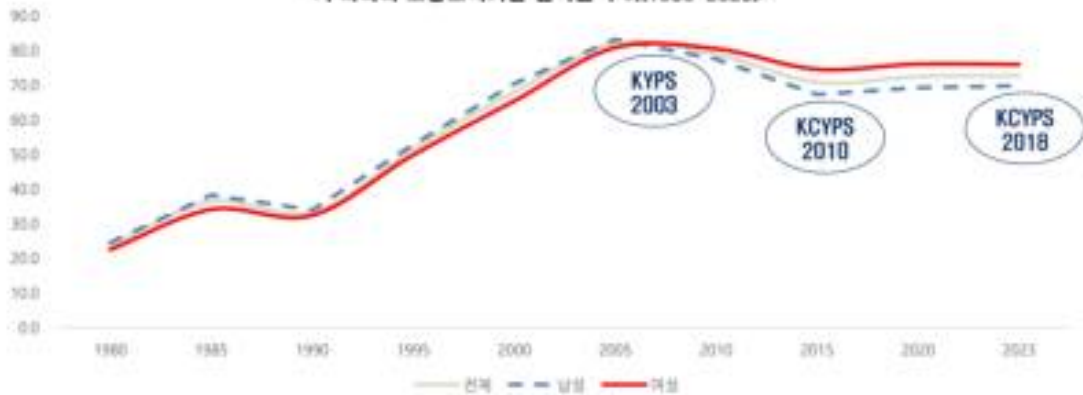
3장 고3 시기의 교육기대

02 학교 이행(school continuation) 실태

각 코호트를 학교 이행 여부를 살펴보면, KYPs 2003 코호트는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을 때 고3 시기를 보냄

KCYPS 2010 코호트는 대학진학률이 완회되었던 시점에, KCYPS 2018은 진학률이 유지하는 시점에 고3 시기를 보냄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추이(1980-2023)〉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24), KESS(<http://kess.kedri.net/>) 자료 인용(검색일: 2024.10.29), 통계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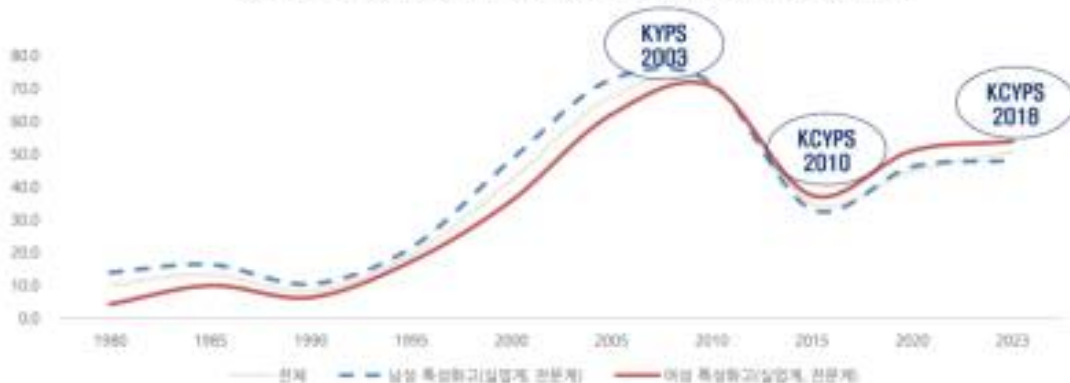
2장 고3 시기의 교육기대

02 학교 이행(school continuation) 실태

고졸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던 KCYPS 2010 코호트 시기에 특성화고 졸업자들의 대학 진학률은 크게 감소

이 시기에 고졸 취업 지원이 활발했는데 KCYPS 2018의 경우 잇따른 현장실습 사망사고로 진학 상승세로 전환

〈특성화고(실업계, 직업계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추이(%), 1980-2023년)〉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24), KESS(<http://kess.kedri.net/>) 자료 인용(검색일: 2024.10.29), 통계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0

2장 고3 시기의 교육기대

02 학교 이행(school continuation) 실태

KCYPS 2010 코호트의 고3 시기에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고 학생생활기록부로 뽑는 수시전형이 확대됨.

KCYPS2019 코호트의 경우 졸업생에게 유리한 정시 확대와 위은 수능 출제, 의대 정원 확대로 재수생이 크게 늘어남.

〈수학능력시험 졸업생 응시자 수 및 지원자 중 비중(명, %, 1994-2024년)〉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4), 수능통계(https://www.sunung.net/), 자료 인용(김석일, 2024.09.14.)
출처: 김기현, 모병론(2024: 19)

2장 고3 시기의 교육기대

02 학교 이행(school continuation) 실태

OECD 국가 중 25-34세 인구에서 최종 교육수준에 고등교육 이상인 비율은 한국이 최고 수준을 보여줌.

우리나라 청년의 고등교육 비율은 OECD 평균보다 23%p나 높은 수준이며 EU 보다도 26%p나 높은 수준임.

〈25-34세의 최종 교육수준 국제비교(%), 2022년〉



자료: OECD(2023), Education at a Glance(https://doi.org/10.1787/ef15ba163-ko)(김백일, 2024.09.14.)
출처: 김기현, 모병론(2024: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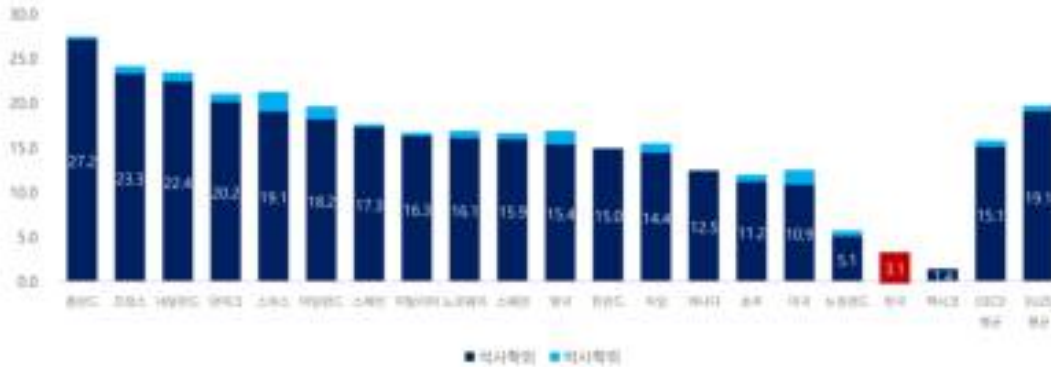
2장 고3 시기의 교육기대

02 학교 이행(school continuation) 실태

OECD 국가 중 25~34세 인구에서 고등교육 이상 비율은 최고 수준이지만 석사-박사학위자 비중은 전혀 다른 상황임

우리나라 청년의 석사, 박사학위비율은 3.1%로 OECD 보다 12%p나 낮은 수준이며 EU 보다도 16%p나 낮은 수준임.

<25~34세의 최종 교육수준 석사-박사학위자 비율 국제비교(%), 2022년>



자료: OECD(2023), Education at a Glance(<https://doi.org/10.1787/ef15be163-en0>) [검색일: 2024.09.14.]
출처: 김기현, 오병환(2024: 18)

3장 고3 시기의 교육기대

03 아동·청소년패널 조사 교육기대 영향요인

KCYPS 2010 고3학생의 교육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항로지트 분석(multinomial logit) 시도

학업성적과 가구소득, 진로 변수들은 상급학교 진학에 정(+), 직업계고는 부(-)의 효과를 보여줌

<고3학년 학생의 교육기대 영향 요인(계수, 미결정·미진학·전문대/대학 진학, 대학원 진학/대학 진학)>



자료: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 원자료
출처: 김기현, 김문희, 권경남, 오병환, 오현주 (2023), 청년의 성인기 이행 경로 연구: 심층분석보고서(말간매장)

3장 27세 시점의 학교 이행 결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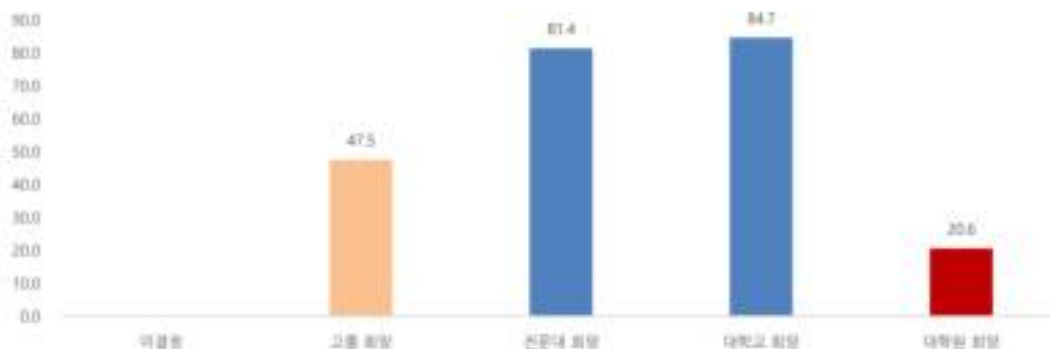
3장 27세 시점의 학교 이행 결과

01 교육수준별 교육기대와 27세 시점 실제 일치 정도

고졸을 희망했던 중1학년 응답자 중 47.5%만이 고졸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대학 이상으로 진학

대학원 진학을 희망했던 중1학년 중 20.6%만이 실제 대학원에 진학해 고3 시점의 결심을 대다수 유지하지 못함

〈KCYPs 중1학년의 2025년 학교 이행 결과(%), 2025년〉



자료: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 중1학년 추적조사(2025년) 원자료
출처: 김기현, 김문희, 권광남, 오병환, 무현주 (2025), 청년의 숨은지 이행 경로 연구: 심층분석보고서(말간매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6

3장 27세 시점의 학교 이행 결과

01 교육수준별 교육기대와 27세 시점 실제 일치 정도

고졸 취업을 생각했던 중1패널 응답자 중 78.3%는 전문대에 진학했고 21.7%는 4년제 대학교에 진학

대학원 진학을 희망했던 중1패널 중 12.7%는 전문대를 졸업했고 87.3%는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침

<고 3시기 고졸 및 대학원 희망 실제 대학 진학 비중(%), 2025년>



자료: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 중1패널 추적조사(2025년) 원자료
출처: 김기현, 김문희, 권경남, 오병훈, 우현주 (2025), 청년의 성인기 이행 경로 연구: 심층분석보고서(말간역량)

3장 27세 시점의 학교 이행 결과

02 중1패널 응답자에 대한 심층면담

- 조사방법** - 심층면담(n-depth interview)
- 조사대상** - KCYPs 중1패널 추적조사 참여한 응답자 중 대상 기준에 맞게 선정
- 조사기간** - 2025년 8월 중 / 1인당 소요 시간 : 50분 내외
- 표본수** - N=21명
- 그룹 구성** - 성별 및 2개 권역수도권, 비수도권, 교육수준(고졸, 대졸, 대학원생) 세분화

진행 방법

```

        graph LR
            A[조사 대상 선정  
기준 관련  
연구원과 협의 후 확정] --> B[본 조사 시  
대상자에게  
참여 의향 확인]
            B --> C[참여 동의서 확보 및  
일부 진행 일정 안내]
            C --> D[면담 대상자 섭외]
            D --> E[면담 조사 진행]
            
```

출처: 김기현, 김문희, 권경남, 오병훈, 우현주 (2025), 청년의 성인기 이행 경로 연구: 심층분석보고서(말간역량)

3장 27세 시점의 학교 이행 결과

02 중1패널 응답자에 대한 심층면담

유형	특성
[1유형] 특성외고 출신-학업 포기형- 조기 취업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다수 특성외고 출신임 · 학업포기 및 조기 취업 대학 중퇴율의 경향을 함 · 부모의 기대와 지원은 다양하나 학업 의지가 매우 적고 경제적 부담이 없음 · 학교의 진로지도 부족에 교육기대 이행을 재확인하고 있음
[2유형] 일반고 출신-실용적 취업형- 타입적 이행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로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임 · 모두 대학 졸업률 높고 전문대학부터 지방대, 수도권 중위권대, 수도권 명문대까지 학력 다양함 · 교육기대 형성시 미래와 교사의 영향이 큼 · 수도권 지방을 내면하였지만 현실적 제약 속에서 재수·편입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며, 최종적으로는 취업 중심으로 교육기대를 조정하는 경도임 · 대학 전공대입은 여전히 있으나 이전과는 다른 이유는 일거일락 태도를 나타냄
[3유형] 특수목적고 출신-조건부 성취형- 상향 지향 지속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는 과학고, 예술고, 자율형 사립고 등 특수한 고교 배경을 가지고 있어 고교 단계부터 상향 지향이 강함 · 다수는 음악·이공계 등 전문적 진로를 목표로 하고 실제로 대학원 진학·연구 경로를 이어감 ·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을수록 안정적으로 교육기대를 유지함 · 일부는 경제적 재력과 성적 안정에 타협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음

출처: 김기현, 김윤희, 권경남, 오병훈, 유현주 (2025), 청년의 성인이 이행 결과 연구: 심층분석보고서(말간예결)

3장 27세 시점의 학교 이행 결과

02 중1패널 응답자에 대한 심층면담



출처: 김기현, 김윤희, 권경남, 오병훈, 유현주 (2025), 청년의 성인이 이행 결과 연구: 심층분석보고서(말간예결)

4장 정책적 시사점

AS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장 정책적 시사점

01 정책 방향



AS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7

4장 정책적 시사점

02 재학 및 졸업 직후 조기 개입



4장 정책적 시사점

02 재학 및 졸업 직후 조기 개입

- 1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는 조기 개입과 예방적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임
- 2 유럽연합은 졸업 후 4개월 이내에 실업을 비롯한 니트와 예방 주력
- 3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 니트비율 감소 가시적 성과
- 4 코로나 이후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2단계 사업 확장 추진 중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

▶ 유럽연합은 청년 실업자와 청년 니트(NEET)의 확산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고 청년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보장제를 2013년부터 추진함.

▶ 청년보장제는 25세 미만 청년들이 실직하거나 정규교육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4개월 내에 실업자이거나 니트(NEET)일 경우 양질의 고용, 지속적 교육, 견습 또는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유럽연합 이사회는 청년보장제 이행과 관련하여 ① 모든 이해당사자 간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공공만이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모델), ② 조기 개입(니트 상태에서 개입하는 시점을 4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대응), ③ 노동시장 통합(채용장려금, 임금보조금 등 실업자 지원과 니트와 같은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지원, 그리고 창업촉진 지원 등을 통합해 운영), ④ 유럽연합 예산의 적극적 활용(회원국의 재정투자 외에 유럽사회기금, 청년고용 미니세터브 등 EU 재정 연계), ⑤ 제도에 대한 평가와 지속적 개선, ⑥ 신속한 이행(2013년까지 실행계획 수립) 등 6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4장 정책적 시사점

02 재학 및 졸업 직후 조기 개입

- 1 학교-입자리 이행 집중 지원을 위한 첫 출발은 교육과 노동시장 정보 연계에 있음
- 2 기획재정부 주도로 2024년부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통계 매칭하기 위한 사업 추진
- 3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처럼 법적으로 정보 연계 근거 마련 필요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4)

4장 정책적 시사점

03 진학과 취업 선택지의 다변화

- 1 직업계고 정상화는 성인기 이행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
- 2 산업안전 이슈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신기술 인재 양성 산실로 탈바꿈 필요
- 3 직업교육 혁신지구와 산산업분야 직업계고 학과 개편, 마이스터고 확대 등 강화 필요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4)

4장 정책적 시사점

03 진학과 취업 선택지의 다변화

- 1 대학원 진학이 대안이 된다면 오픈 현상과 대졸 경쟁 완화에 기여
- 2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인력 어려움 가중, 생활비 지원 등 개선책도 등장
- 3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는 지원정책을 보다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

감사합니다

발표 2

경제위기 시기 졸업 코호트의 노동시장 이행과 극복 방안 검토

문상균 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청장년직업능력연구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동정책포럼

불확실성의 시대, 청년의 길을 묻다

경제 위기 시기 졸업 코호트의 노동시장 이행과 극복 방안

본 내용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수행한 경제위기 시기 청년기 노동시장 진입의 장기적 효과와
인력자본 축적(문상균 외, 2024)과 일학습병행 성과(전진택·박종성 외, 2024)에서 발췌하였음

본 연구는...

• 본 연구는

- 1) 경제 위기 시기 졸업생들이 노동시장 진입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 2) 장기 노동시장 경력 비교를 통한 상흔 효과

실증적으로 분석

• 기존 선행연구

- 졸업 시점의 실업률과 노동시장 성과의 관계

• 차이점

- 경제 위기 졸업 코호트 별
 - 노동시장 진입
 - 상흔 효과

최근 3 가지 경제위기 시점 비교 검토 :
아시아 금융위기 (IMF),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코로나 19

본 연구는...

- 앞선 연구 질문에 대한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

- ①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 졸업생에 대한 진입 및 상흔효과 존재
- ② 코로나 19 시기 졸업생의 초기 노동시장 진입 시 어려움 존재
- ① + ② = 코로나 19 시기 졸업생의 경우 이후 장기적 상흔 효과 발생 가능성 존재

→ 향후 경제 위기 시점 졸업자를 위한 개선된 정책 방안의 제안 필요 확인

본 연구는...

- 본 연구는

- 앞선 분석 결과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아래 연구 질문에 대한 분석을 수행

3) 초기 노동시장 충격과 장기 노동시장 성과 개선을 위한 극복 방안 검토

- 하향 취업을 통한 조기 취업의 효과 검토(패널 데이터 기반 장기 성과 분석)
 - 진입 경로를 ① 느린 진입 vs ② 빠르지만 낮은 질의 진입으로 구분
 - 두 경로가 장기 소득 누적에 미치는 차이를 정량적으로 비교
- 조기 입직을 지원하는 정책의 효과 검증(일학습병행 행정자료 활용)
 - 정책 참여 여부에 따른 이후 임금 추이 분석
 - 해당 정책 참여자 vs 동일 성별, 연령 임금근로자의 소득 추이 비교 분석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1

●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1

분석 질문	분석 목적	종속변수	분석모형	설명변수	분석 자료
1)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 +	아시아 금융위기 졸업자 노동시장 성과 분석	근로 여부 대기업 근로 여부 로그월소득	OLS	아시아 금융위기 졸업 코호트 (= 1998년 & 1999년) (ref 집단: 1996, 1997, 2000~2006년)	한국노동패널 1~25차 원자료
	2) 장기 상혼효과 분석	졸업 후 총 근로기간 졸업 후 총 소득 재학기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코호트 (= 2009년 & 2010년) (ref 집단: 2007, 2008, 2011, 2012년)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2

●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2

분석 질문	분석 목적	종속변수	분석모형	설명변수	분석 자료
1)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	코로나19 시기 졸업자 노동시장 진입	취업 경험 유무 첫 취업까지 기간	OLS	각 졸업연도 (2016년 ~ 2024년)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16~2024년 원자료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졸업자 노동시장 진입	첫 취업까지 기간		각 졸업연도 (2007년 ~ 2012년)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07~2012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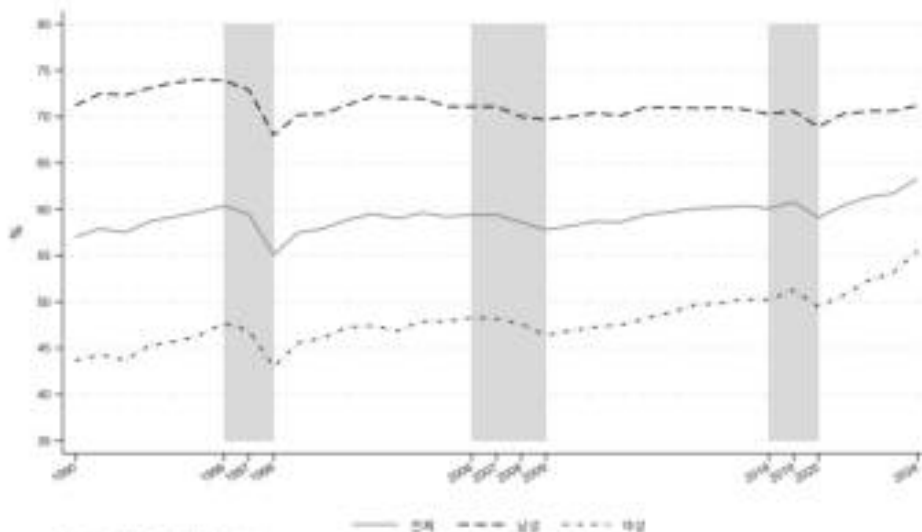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3

●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3

분석 질문	분석 목적	종속변수	분석모형	설명변수	분석 자료
3) 인적자본 축적 방안 성과 분석	하향 취업을 통한 조기 취업의 효과 검토	졸업 후 소득 총액	OLS IV-2sls	범주형 변수 혹은 더미변수 : 취업까지 기간 + 하향취업(임금, 교육수준)	청년패널 2007 1~14차 원자료
	조기 입직을 지원하는 정책의 효과 검증	소득 순위 (동일 연령-성별 중)	기초통계분석	입학습병행 수료자 Vs 동일 성별-연령	고용보험 피보험자 근로복지공단 입금정보 입학습병행 참여자 정보

경제위기 시기별 지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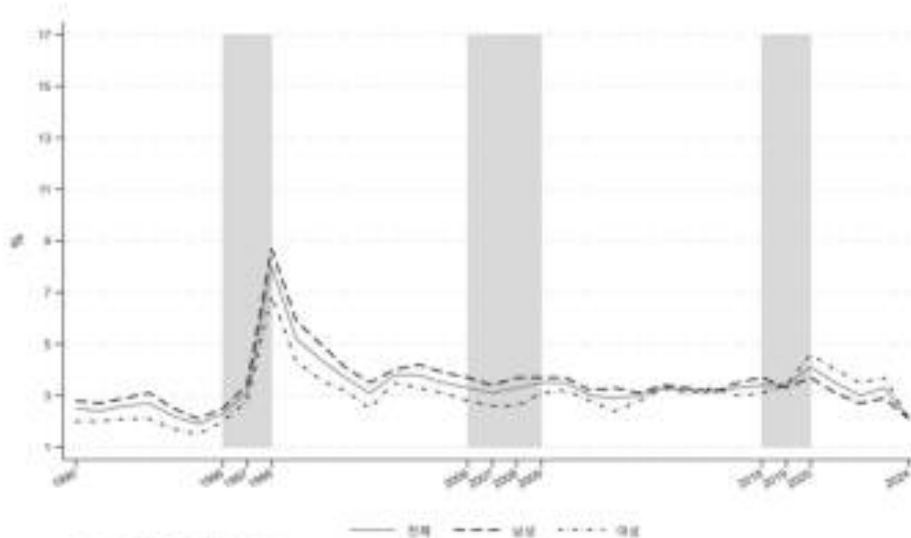
● 경제 위기 시기별 고용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위기 시기별 지표 변화

● 경제 위기 시기별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 결과 1 : 두 금융위기 시기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

● 아시아 금융위기와 초기 노동시장 진입

설명변수	종속변수 졸업 1년 후		
	근로 여부 평균: 0.45	대기업 근로 여부 평균: 0.09	로그월임금(로그만원) 평균: 5.22
아시아 금융위기 졸업 코호트 (= 1998년 & 1999년)	-0.048**	-0.030**	-0.052
표준오차	0.025	0.014	0.044
t-통계량	-1.96	-2.1	-1.18
	종속변수		
	근로 여부	대기업 근로 여부	로그월임금
표본 수	5,919	5,919	1,492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10) 한국노동패널 1~2차 분석요
주: **p<0.01, *p<0.05, *p<0.1

→ 아시아 금융위기 졸업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남

: 초기 노동시장 진입에서 어려움을 경험

분석 결과 1 : 두 금융위기 시기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

●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와 초기 노동시장 진입

설명변수	종속변수		
	졸업 1년 후		
	근로 여부	대기업 근로 여부	로그월임금(로그만원)
	평균: 0.47	평균: 0.107	평균: 5.32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코호트 (= 2009년 & 2010년)	-0.007	-0.016	-0.021
표준오차	0.030	0.018	0.037
t-통계량	-0.23	-0.86	-0.56
통제변수			
성별, 연령, 인종, 교육, 학위 과정, 학사 점수, 상이점	지역		
표본 수	1,708	1,708	836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23), 한국노동패널 1-25차 원자료.
주: (1) ***p<0.01, **p<0.05, *p<0.1
(2) 표준 오차 서명이 붙지 않은 표정할 수 있는 표정변을 포함하다. 모든 종속 기간이 같이점수로 표본 수가 감소함

→ 반면, 미국발 금융위기 졸업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X

분석 결과 1 : 두 금융위기 시기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

● 아시아 금융위기와 총 근로기간 및 총 소득

설명변수	종속변수		
	졸업 후 총 근로 기간(단위: 일)		
	졸업 후 10년간	졸업 후 15년간	졸업 후 20년간
	평균: 2,121	평균: 3,321	평균: 4,548
아시아 금융위기 졸업 코호트 (= 1998년 & 1999년)	-156.024**	-240.882***	-292.018**
표준오차	62.45	90.5	128
t-통계량	-2.50	-2.66	-2.28
통제변수			
성별, 졸업 시 연령, 학위 과정, 상이점	지역		
표본 수	3,358	3,079	1,71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23), 한국노동패널 1-25차 원자료.
주: (1) ***p<0.01, **p<0.05, *p<0.1
(2) 표준 오차 서명이 붙지 않은 표정할 수 있는 표정변을 포함하다. 모든 종속 기간이 같이점수로 표본 수가 감소함

→ 아시아 금융위기 졸업자의 경우 졸업 후 20년 간 총 근로기간이 타 시기 졸업자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남

분석 결과 1 : 두 금융위기 시기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

● 아시아 금융위기와 총 근로기간 및 총 소득

설명변수	종속변수		
	졸업 후 총 임금 소득(단위: 만원)		
	졸업 후 10년간	졸업 후 15년간	졸업 후 20년간
	평균: 14,856	평균: 26,831	평균: 39,960
아시아 금융위기 졸업 코호트 (= 1998년 & 1999년)	-1331.069*	-1960.486	-1855.774
표준오차	759.34	1234.64	1917.31
t-통계량	-1.75	-1.59	-0.97
	통계변수		
성별, 졸업 시 연령, 학위과정, 상수항			
표본 수	3,358	3,179	1,71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22), 한국노동패널 1~25차 원자료.

주: (***) p<0.01, ** p<0.05, * p<0.1

고: 표준 오차 시점이 결측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표본만을 포함하다 보니 결측 기간이 길어질수록 표본 수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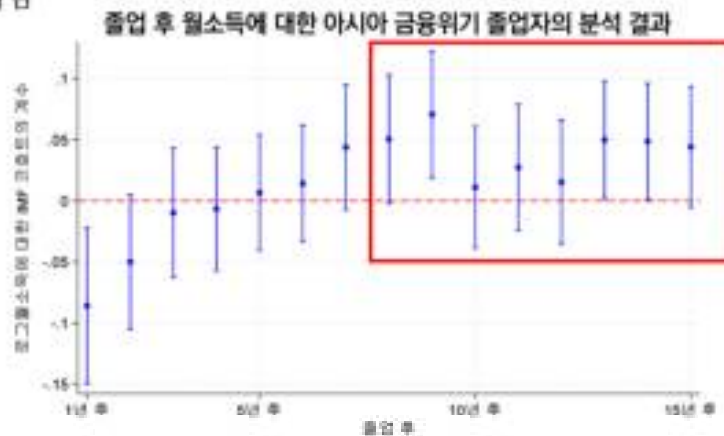
→ 아시아 금융위기 졸업자의 경우 졸업 후 10년 간 총 임금 소득이 타 시기 졸업자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남

분석 결과 1 : 두 금융위기 시기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

● 아시아 금융위기와 총 근로기간 및 총 소득

- 졸업 후 10년 이후 총소득 격차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 검토

: 졸업 10년 전후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아시아 금융위기 시점의 졸업자가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 나타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22), 한국노동패널 1~25차 원자료.

주: (1) = 졸업 후 10년 전후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2) = 졸업 후 15년 전후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의 계수 값을 나타냄.

고: 10% 신뢰구간을 나타냄

분석 결과 1 : 두 금융위기 시기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

● 강진성 검토 : 아시아 금융위기와 졸업 유예 가능성 검토

설명변수	종속변수
	재학 기간(단위: 년)
아시아 금융위기 졸업 코호트 (= 1998년 & 1999년)	0.011
표준오차	0.062
t-통계량	-0.18
통제변수	
성별, 졸업 시 연령, 학위과정, 상수항	포함
표본 수	3,358

자료: 1) 한국노동연구원(2022), 한국노동패널 1~25차 원자료.
주: 1) ***p<0.01, **p<0.05, *p<0.1
2) 표준오차 사용이 통계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표본만을 포함하여 실시된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표본 수가 감소함

→ 아시아 금융위기 졸업을 피하기 위해 졸업 유예를 선택하는 경우가 다수는 아닐 가능성 높음

분석 결과 1 : 시사점

● 아시아 금융위기

- 1) 초기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음 (졸업 1년 후 근무 확률 및 대기업 근무 확률)
- 2) 타 졸업자에 비해 낮은 총 근로기간 (졸업 후 10, 15, 20년 간)
- 3) 타 졸업자에 비해 낮은 총 임금소득 (졸업 후 10년간)

상
훈
효
과

●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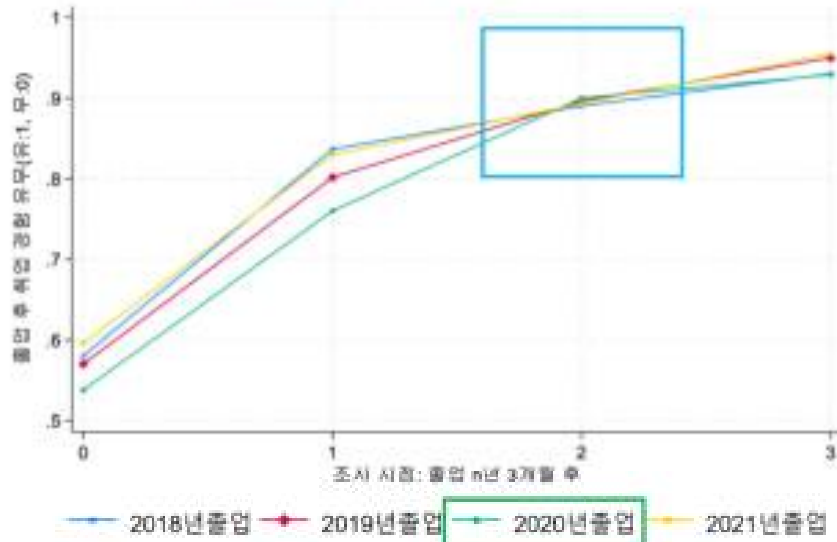
- 1) 초기 노동시장 진입, 총 근로기간, 총 임금소득 모두

타 시점 졸업자와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차이를 보임

분석 결과2 : 코로나 19 시기의 노동시장 진입

- '졸업 후 취업 경험 여부'(2020년 2월 졸업 코호트 vs 2018, 2019, 2021년 2월 졸업 코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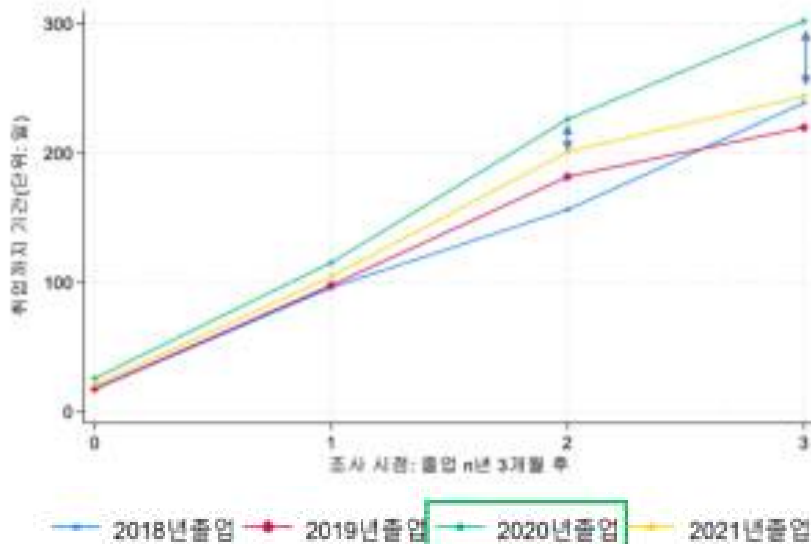
→ 초기 취업 경험 비율이 낮으나 2년 3개월 후 유사한 수준



분석 결과2 : 코로나 19 시기의 노동시장 진입

-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린 기간

(2020년 2월 졸업 코호트 vs 2018, 2019, 2021년 2월 졸업 코호트)



분석 결과2 : 코로나 19 시기의 노동시장 진입

● 선형회귀모형 - 졸업 후 첫 취업 경험자

: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린 기간' (기준: 2019년 2월 졸업 코호트)

설명변수 : 졸업 연도	조사 시점			
	졸업 3개월 후	졸업 1년 3개월 후	졸업 2년 3개월 후	졸업 3년 3개월 후
	졸업 후 첫 일자리카기 걸린 기간(단위: 일)			
평균	20	102	180	289
2016년	-1.869	7.747	-7.836	5.785
2017년	-1.641	8.169	-28.1	-23.43
2018년	-0.83	-2.182	-26.58	16.24
2019년	ref			
2020년	7.484**	16.83	41.28**	80.00***
2021년	3.041	6.252	17.65	28.82
2022년	3.157	-6.767	-29.05	
2023년	-0.0644	-8.196		
2024년	3.91			
통계량				
변형 : 연령, 연령 제곱, 학위과정, 졸업 연도 제곱항, 성수형				
표본 수 (회귀당 관측치)	1344	2940	2839	2544

표본 수 (회귀당 관측치) : 1344, 2940, 2839, 2544
 ***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통계량)이다. ** 5% 수준에서, * 10% 수준에서
 ref : "reference", "year2019", "year19"

분석 결과2 : 코로나 19 시기의 노동시장 진입

● 콕스비례위험모형 - 졸업 후 첫 취업 경험자 + 취업 미경험자(생존기간: 졸업 후 조사 시점까지)

: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린 기간' (기준: 2019년 2월 졸업 코호트)

설명변수 : 졸업 연도	조사 시점			
	졸업 3개월 후	졸업 1년 3개월 후	졸업 2년 3개월 후	졸업 3년 3개월 후
	졸업 후 첫 일자리카기 걸린 기간(단위: 일), 사건: 취업			
위험비				
2016년	1.129	1.008	0.991	0.993
2017년	1.06	1.163**	1.079	1.04
2018년	0.995	1.108	1.01	0.969
2019년	ref			
2020년	0.743***	0.832**	0.898	0.848**
2021년	0.989	1.028	0.966	1.049
2022년	1.067	1.044	1.063	
2023년	1.06	1.046		
2024년	0.951			
통계량				
변형 : 연령, 연령 제곱, 학위과정, 졸업 연도 제곱항, 성수형				
표본 수	3947	3939	3639	3733

표본 수 : 3947, 3939, 3639, 3733
 ***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통계량)이다. ** 5% 수준에서, * 10% 수준에서
 ref : "reference", "year2019", "year19"

분석 결과 2 :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시기의 노동시장 진입

● 선형회귀모형 - 졸업 후 첫 취업 경험자

: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린 기간' (기준: 2007년 2월 졸업 코호트)

일명 변수 : 졸업 연도	조사 시점				
	졸업 3개월 후	졸업 1년 3개월 후	졸업 2년 3개월 후	졸업 3년 3개월 후	
	졸업 후 첫 일자리에까지 걸린 기간(단위: 일)				
	평균	19	92	147	201
2007년			ref		
2008년		0.715	-1.677	-5.196	21.72
2009년		1.557	-7.236	-20.17	10.65
2010년		-0.206	-13.05	-35.72**	
2011년		1.016	-4.287		
2012년		-2.206			
		종속변수			
		연령, 성별, 전공 학종, 학사 과정, 분기 연도, 단점종, 상수항			
표본 수 (제 1회 설문조사)		2034	2081	1695	1365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선형회귀분석을 위한 졸업 후 19년 2월 코호트 2007년 학제
주석: **p<0.01, *p<0.05, *p<0.1

분석 결과 2 : 시사점

1. 졸업 코호트 간 초기 취업률 수렴 현상

- 졸업 후 3년 3개월 후 코로나 19 시기 졸업생의 취업률은 타 시점과 큰 차이 X

2. 코로나19 시기 졸업생의 초기 취업 소요 시간 증가

- 2019년 대비 2020년 졸업생의 첫 취업 까지 기간 80일 증가 (약 28%)
- 초기 노동시장 진입 시 어려움

3.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졸업생의 경우 취업기간의 유의미한 증가 X

- 반면, 코로나19 시기 졸업생의 경우 취업 지연 현상이 두드러짐

4. 코로나19 시기 졸업생들은 초기 취업 지연을 겪었으며, 장기적 상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아시아 금융위기 코호트의 경험에 비취 볼때 (분석 결과 1)

→ 향후 위기 시 노동시장 진입 시기에 인적자본 축적 방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추가 정책이 요구

분석 결과3 : 극복 방안 검토

- 극복 방안 검토 필요성

- 초기 노동시장 진입 실패 → 상흔효과 발생 → 장기적 경력 저하 가능성 존재 확인

- 이에 따라 초기 경력 형성 경로에 대한 실증적 검토 필요

→ 노동시장 진입 개선 및 상흔 효과 완화를 위한 정책 설계의 근거 제시

- 특히 초기 경력 형성 경로 중 초기 노동시장에서의 일 경험 (Tesluk·Jacobs, 1998; Sullivan, 2010)

- 노동시장 진입 시기와 초기 일자리 수준과 장기 성과 검토

- 초기 입직 관련 정책(일학습병행 참여자) 효과 검토

분석 결과3 : (1) 조기하향취업과 노동시장 성과

- 하향취업을 통한 조기취업 노동시장 성과

- 하향취업을 통한 조기취업

- 1)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린 기간: 100일 미만, 100일~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 이상

- 2) 첫 일자리의 특징: 하향취업

- ① 객관적 기준: 첫 일자리 임금의 중위소득(미만, 이상)

- ② 주관적 기준: 교육 수준 대비 업무 수준(보통 이하, 높음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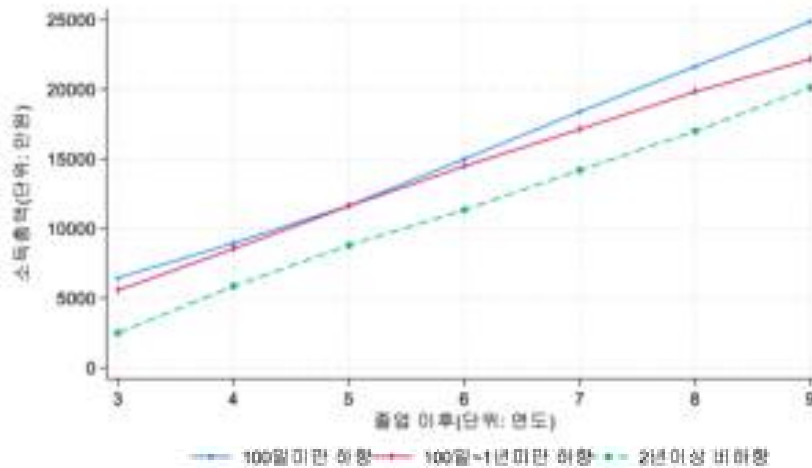
첫 취업까지 기간	첫 일자리 특징	사람 수	비율
100일 미만	비하향 취업	631	29.82
	비하향 취업	491	23.2
100일 이상 ~ 1년 미만	하향 취업	216	10.21
	비하향 취업	166	7.84
1년 이상 ~ 2년 미만	하향 취업	148	6.99
	비하향 취업	134	6.33
2년 이상	하향 취업	177	8.36
	비하향 취업	153	7.23
총합		2,116	100

※ 1) 해당 표는 분석에 포함된 대학 졸업자의 총 취업 형태 분포를 나타내며, 한 명의 졸업자가 중복되어 표기되지 않음.

분석 결과3 : (1) 조기하향취업과 노동시장 성과

- 조기 하향취업과 졸업 후 총 임금 소득

- 100일 미만 하향 취업 집단 > 2년 이상 비하향 취업 집단



분석 결과3 : (1) 조기하향취업과 노동시장 성과

- 조기 하향취업과 졸업 후 총 임금 소득 : 100일 미만 하향 취업 VS 1년 이상 2년 미만 비하향 취업

조기하향취업의 노동시장 성과: vs '1년 이상 2년 미만 비하향' (IV-2SLS)

첫 취업 특성(설명변수)		종속변수 임금 총액 (단위: 만 원)				
첫 취업까지 기간	첫 일자리에 특성	졸업 후 5년간	졸업 후 6년간	졸업 후 7년간	졸업 후 8년간	졸업 후 9년간
100일 미만	하향 취업	기준: 조기하향취업				
1년 이상 2년 미만	비하향 취업	-2066.7	-4350.7	-7256.8	-9292	-12502
		통계변수				
		성별, 졸업 시 연령, 학위과정, 전공, 졸업연도, 마지막 학기 성적, 상수항				
도구변수의 F-통계량(F-stat)		19.64	19.64	19.64	19.64	19.64
도구변수의 변 R제곱		0.025	0.025	0.025	0.025	0.019
표본 수		301	301	301	301	220

자료: 11월학교출결보통2023, 정년제년 2007.1~14년 임차료
 주: (1) **p<0.01, * p<0.05, * p<0.1
 (2) 대학2~3년제 및 4년제 등 졸업자별 대입년도 분리
 (3) F-stat의 도구변수로 학위과정, 학위, 무모정, 장학금, 1. 학제, 졸업 연도 제외

→ 짧은 기간을 졸업 후 1년까지 갖는 것은 긍정적이나 2년이 넘어가면 손해가 될 수 있고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큰 이득이 없을 가능성이 존재

분석 결과3 : 참조

● 조기 하향취업과 졸업 후 총 임금 소득

- 도구변수의 1 - stage 결과

설명변수	종속변수				
	1년 이상 2년 미만 비하향 취업 (ref: 초기비하향)				
각급고졸 당시	졸업 후 1년 간	졸업 후 6년 간	졸업 후 7년 간	졸업 후 8년 간	졸업 후 9년 간
부도 및 단학급	ref				
표준, 형제, 학자금	-0.007**				-0.017**
	통계변수				
성별					표준
졸업 시 연령					표준
학위 취득(3년제 여부)					표준
연(지역별)					표준
졸업 연도					표준
지역제약기 통제					표준
상수항					표준
도구변수(1-통계량)-stage1	0.004				0.000
도구변수의 편회계량	0.028				0.019
표본수	397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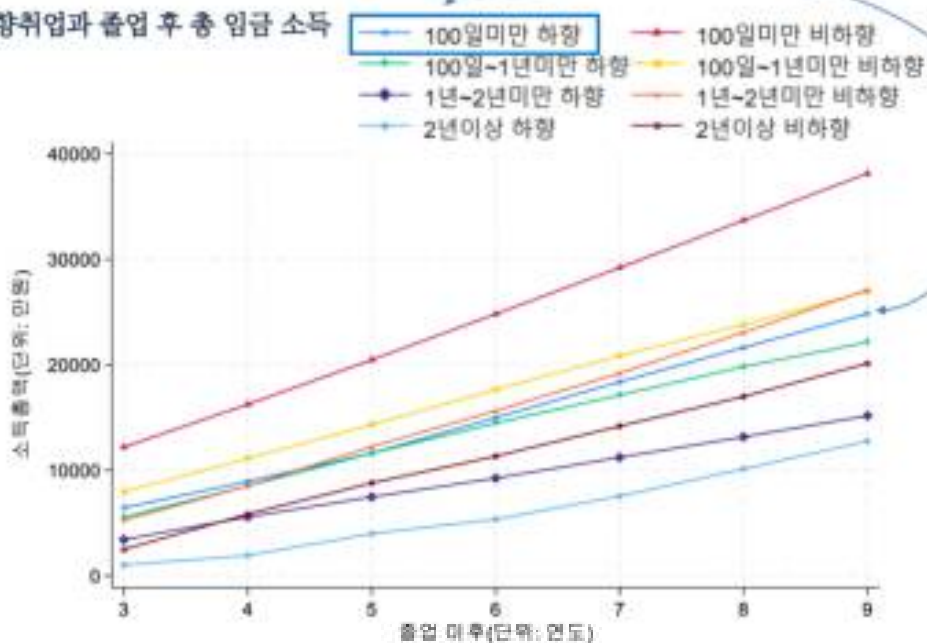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KOITA) 경력패널 2007 1-16차 실시.

* p<0.1, ** p<0.05, *** p<0.01

[1] 졸업 후 9년 간 임금총액 분석 시 졸업 후 9년 미만으로 알려져 표본 제외(표본 감소)

분석 결과3 : 참조

● 조기 하향취업과 졸업 후 총 임금 소득



분석 결과3 : 참조

● 조기하향취업

1. 선형회귀모형 분석 결과

첫 취업까지 기간	첫 일자지 특성	종속변수				
		임금 총액 (단위: 만원)				
		출입 후 5년간	출입 후 6년간	출입 후 7년간	출입 후 8년간	출입 후 9년간
100일 미만	하향 취업	기준: 조기하향취업				
	비하향 취업	5267.7***	6079.1***	6799.9***	7574.7***	8580.2***
100일 이상	하향 취업	-925.7**	-1054.2*	-1129.7	-1184	-701.5
1년 미만	비하향 취업	2149.7***	2566.5***	2882.1***	3155.5***	3302.3***
1년 이상	하향 취업	-2704.7***	-3003.6***	-3118.7***	-3194.6***	-3522.1***
2년 미만	비하향 취업	-56.3	251.3	614.6	1044.2	1844.5
2년 이상	하향 취업	-5322.3***	-6045.2***	-6191.7***	-6357.8***	-6434.2***
	비하향 취업	-3847.8***	-3935.1***	-4059.4***	-3960.0***	-3647.4***
통계량						
임대						
출입 시 연령						
학위 과정(상제 이하)						
전공(자연)						
출입연도(1998~2012)						
상수항						
변인수		2,098	2,095	2,095	2,095	2,09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23), 생산매출 2007~1~4년 원자료.
주: (**) p<0.01, (*) p<0.05, * p<0.1

분석 결과3 : (2) 일학습병행 참여자의 효과 검토

● 분석 대상

- 일학습병행: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돕고, 현장(OJT) 및 이론교육(OFF-JT)를 통해 자격 혹은 학위를 부여하는 훈련 제도

• 일학습병행 재직자 과정

- 참여 대상: 해당 기업에 1년 미만 근속 재직자(86년~99년생)
- 분석 대상: 2016년 참여 후 수료생(이수 및 수료)

• 일학습병행 재학단계 중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과정

- 참여 대상: 특성화 고등학교 중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 분석 대상: 2016년 도제 단계 참여 후 수료생 (이수 및 수료)

분석 결과 3 : (2) 일학습병행 참여자의 효과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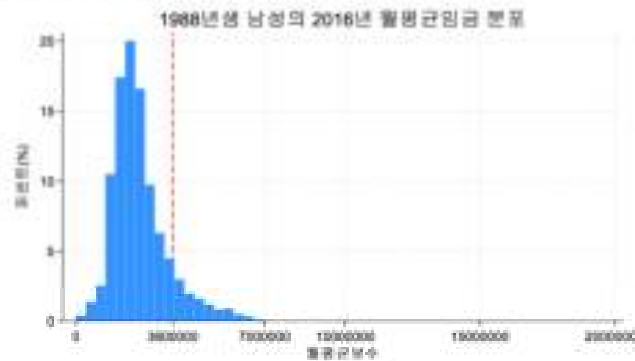
● 성과 변수

• 소득 순위

- 해당 연도의 소득 순위: 100 - (해당 연도의 동일 '성별' & '나이' 내 월평균임금 백분위수 순위)

예시. 360만원의 월급을 받는 1988년생 남성의 2016년 소득 순위

= 11.12 (19,507등/175,449명)



분석 결과 3 : (2) 일학습병행 참여자의 효과 검토

● 2016년 일학습병행 재직단계 참여자 vs 비교집단 표본 수 1

1. 월평균임금 분석 시점 별 표본 수

일학습병행 참여자			비교집단		
분석 시점	표본 수	비율	분석 시점	표본 수	비율
2016	5,618	17.79	2016	3,169,364	13.07
2017	5,581	17.67	2017	3,552,117	14.65
2018	5,420	17.16	2018	3,949,002	16.28
2019	5,121	16.21	2019	4,261,994	17.57
2020	4,987	15.79	2020	4,503,369	18.57
2021	4,855	15.37	2021	4,818,371	19.87
총합	31,582	100	총합	24,254,217	100

분석 결과 3 : (2) 일학습병행 참여자의 효과 검토

● 2016년 일학습병행 재직단계 참여자 vs 비교집단 표본 수 2

1. 2016년 표본의 출생연도 - 성별 표본 수

출생연도	일학습병행 참여자		출생연도	비교집단	
	남	여		남	여
1986	306	46	1986	149,461	119,003
1987	347	66	1987	170,484	133,724
1988	418	87	1988	175,031	146,841
1989	425	129	1989	170,524	160,888
1990	458	148	1990	161,827	165,294
1991	480	196	1991	151,202	181,699
1992	386	199	1992	131,813	176,818
1993	265	179	1993	112,514	151,909
1994	108	121	1994	89,678	120,703
1995	90	81	1995	45,561	95,960
1996	160	49	1996	56,619	72,151
1997	458	111	1997	64,098	60,176
1998	179	59	1998	37,318	29,991
1999	10	5	1999	5,806	5,451
총합	4,130	1,488	총합	1,542,538	1,621,208

분석 결과 3 : (2) 일학습병행 참여자의 효과 검토

● 2016년 일학습병행 재직단계 참여자 연도별 임금 순위

- 훈련 시작 2016년 42.2등에서 훈련 종료 후 2019년 35.8등으로 순위 상승
- 2020년 2021년 다소 상승하였으나 큰 변화는 없는 경향

연도	일학습병행 재직단계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2016	42.18	25.21	5,618
2017	37.79	24.06	5,581
2018	36.34	23.95	5,420
2019	35.81	24.93	5,121
2020	36.10	24.45	4,987
2021	36.25	25.02	4,855

*유사한 출생연도 표본이 학업을 마치고 임금근로자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일학습병행' 참여자의 순위 하락이 우세하기도 하였으나 집계로 나타나는 실용

분석 결과 3 : (2) 일학습병행 참여자의 효과 검토

● 2016년 임금근로자(임의 선택한 비교대상)의 임금 순위 추이

- 2016년 임금근로자와의 임금 순위 추이 비교 시 일학습병행의 추가 순위 상승을 확인

연도	비교대상(=임의 선택한 5,000명) 임금 순위			일학습병행 재학단계 임금 순위		
	평균	표준편차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표본 수
2016	50.59	28.78	5,000	42.18	25.21	5,618
2017	48.07	28.28	4,028	37.79	24.06	5,581
2018	46.70	28.18	3,681	36.34	23.95	5,420
2019	46.36	27.80	3,607	35.81	24.93	5,121
2020	46.82	28.10	3,541	36.10	24.45	4,987
2021	47.25	28.05	3,482	36.25	25.02	4,855

분석 결과 3 : (2) 일학습병행 참여자의 효과 검토

● 2016년 일학습병행 재학단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자 연도별 임금 순위

- 도제학교 과정 중에는 월평균임금이 50만원 수준으로 낮다 보니 임금 순위가 매우 낮으나 2020년까지 꾸준히 순위가 상승함
 - 동일한 출생연도의 전문대 졸업생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2020년에도 순위 상승

연도	일학습병행 재학단계 임금 순위	
	평균	표본 수
2016(고2)	75.65	1,283
2017(고3)	89.91	1,293
2018	60.74	1,169
2019	33.72	716
2020	31.78	729
2021	31.85	864

* 동일 출생연도의 대학 졸업생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2021년 자료까지 검토할 필요성이 높음

분석 결과3 : 시사점

1. 하향취업을 통한 조기 취업의 분석 결과

- 졸업 후 1년 미만의 구직기간은 총소득에 긍정적 가능성 존재
- 졸업 후 2년 이상의 구직은 총소득에 손실 가능성
- ✓ 정책적 시사점 : 졸업 후 1년간 구직 기간 내 구직 지원 및 구직기간 장기화 방지 정책 필요

2. 일학습병행 참여자 효과 검토 결과

- 일학습병행 참여자의 임금 순위는 동일 연령·성별 임금근로자 대비 더 높게 나타남
- 훈련 참여 후 6년 동안 임금 순위가 안정적으로 유지
→ 학위 취득 후 입직한 집단이 분석에 추가되더라도 순위 하락 없음
- ✓ 정책적 시사점 :
 - 구직기간 장기화의 부정적 영향(①)
 - 입직 후 학습 정책의 긍정적 효과(②)
→ 취업과 연계된 직무훈련의 정책적 활용 가치 확인

분석 결과3 : 정책적 시사점

3. 향후 분석의 필요성

- AI로 인한 고용 둔화 → 초기 청년의 일경험을 지원하는 정책 증가
 - 그러나 청년에게 해당 첫 일자리가 더딜는지, 함정인지에 대한 엄밀한 근거 부족
- 과거 데이터를 통해 초기 일자리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
 - 앞서 (2) 연구에서 활용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 (1) 입직 시기와 초기 일자리의 질이 개인의 장기 노동시장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필요
- ✓ 즉, 향후 연구에서는 일학습병행 참여자가 아닌 전체 청년 취업자를 활용해 연구 확장
- ✓ 정책적 방향
향후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 (긍정적 결과 시) 조기 입직을 장려하는 정책을 제안
 - (부정적 결과 시) 또 다른 인적자본 축적 전략(학업 연속, 직무훈련 등)을 제시

발표 3

청년의 위기와 청년복지 제도화

김성아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동정책포럼

불확실성의 시대, 청년의 길을 묻다

청년의 위기와 청년복지 제도화

2025.11.25.

김성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 내용은 발표자의 소속기관이나 발표자가 수행한 연구 결과물의 공식적인 입장과 무관합니다.



1. 한국 청년의 위기



청년의 다차원적 취약성 (Multidimensional vulnerabilities)



자료: 김성하 외, 2025, 「취약계층 청년 복지 및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돌봄청년 청년과, 2025」, 유대희 외, 「가족돌봄청년 청년의 특성」, 박사학위, 2025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자료, 「취업준비청년」, 유대희 외, 2022, 「취업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사업 효과분석-고용률, 교육특성, 저소득 빈곤 청년」, 2025년 「가족돌봄청년과 청년의 복지 및 연구용역」에 활용 (연구 용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11.14. 및 「청년 실업자」, 「청년 실업자」, 「청년 실업」

2. 위기 청년과 청년복지

청년의 다중 취약성 (Multiple vulnerabilities)

구분	유형별 청년	취약성 평가	
		취약성 점수	취약성 평가
한계 취약	경제성난	0.70	경제성난: 최근 6개월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청년
	활동제한성	0.20	취약: 건강상의 문제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활동하거나 사회생활에 제한이 있는 청년
	이주제한성	0.21	제한: 고 3급 이상(지역별 제외)이고, 연차 제한이 없는 청년
	다문화가족세대청년	0.20	부모 중 1명 이상의 국적이거나 국적이 아닌 청년이고, 부모가 모두 65세 이상에 해당되는 청년
중계 취약	한부모가족청년	0.28	한부모가족의 경우적인 청년
	가족돌봄청년	0.21	간헐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활동하는 청년이거나 활동이 필요한 가구원을 돌보는 청년을 지칭하는 청년
	전통청년	1.41	취약하지 않은 청년 중 그 외의 청년에 해당 청년을 지칭하는 청년
일사각 취약	사실상의 청년	0.21	보통소득을 초과하거나 이혼배우자(배우자)의 소득을 지칭
	불안정근로청년	0.26	정시승용직 근로제나 비정규직에 있는 시간제사원 청년
	불안정한 노동 환경 청년	0.24	주당 근무시간이 정상적인 초과근로나 2시간 미만인 경우를 지칭하고 있는 청년
	비이성적 임금 청년	0.21	1년 이내 임금 인상이 없는 청년 또는 임금이 낮은 청년
중저위 취약	취약(비정규직세대)	11.07	남성이, 비정규직세대인 청년 중 비정규직이 해당되는 청년(19-29세)에 대해 교육기관 통학 청년 지칭
	취기종수급청년	0.20	취약: 취약계층(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청년
	과채무부담청년	4.00	개인 통채무가 개인 소득의 50%를 초과하는 청년
	신용불량청년	0.21	신용회복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청년

주: 청년이 2020년 12월 31일 현재 청년 유형을 바탕으로 청년 중 성적으로 취약(성적으로 취약)에서 중(중)으로 분류된 수 있는 청년의 비율
 자료: KINASA, KINASA 청년복지 지원조사 연구, 청년·전통세대청년, 한부모세대청년

2. 위기 청년과 청년복지

청년의 다중 취약성 (Multiple vulnerabilities)

취약 유형 개수	청년 유형별 청년 유형별 개수		
	총수 (명)	비율(%)	취약률(%)
0	7,990	53.4	
1	4,692	31.1	48.7
2	1,707	11.4	75.6
3	487	3.1	4.2
4	122	0.8	1.1
5	28	0.2	0.3
6	10	0.1	0.1
7	0	0.0	0.0
8	1	0.0	0.0
합계	14,825	100.0	

구분	유형별 청년	취약 유형별 개수						
		1	2	3	4	5	6	8
한계 취약	경제성난	0.5	2.5	5.1	14.7	13.4	60.7	100.0
	활동제한성	3.4	9.7	25.6	34.1	75.5	83.8	100.0
	이주제한성	0.0						
	다문화가족세대청년	0.4	0.7	1.3				
중계 취약	한부모가족청년	0.4	0.6	2.1	1.2	14.1		
	가족돌봄청년	0.0	2.2	2.2	3.0	21.3	8.1	100.0
	전통청년	2.1	7.9	17.8	33.7	37.8	20.8	100.0
일사각 취약	사실상의 청년	0.2	0.7	1.3	1.8			
	불안정근로청년	27.3	45.1	54.0	62.4	27.7	83.8	
	불안정한 노동 환경 청년	11.9	20.0	48.9	53.8	31.3	87.5	
	비이성적 임금 청년	11.2	24.8	62.7	81.8	82.9	92.9	
중저위 취약	취기종수급청년(비)	29.8	30.2	31.1	37.1	50.1	6.4	100.0
	취기종수급청년	0.7	3.2	4.1	13.3	23.8	22.3	100.0
	과채무부담청년	8.2	11.2	20.1	27.8	60.8	15.8	
	신용불량청년	0.1	0.2	1.8	2.8	3.8	6.4	

주: 청년이 2020년 12월 31일 현재 청년 유형을 바탕으로 청년 중 성적으로 취약(성적으로 취약)에서 중(중)으로 분류된 수 있는 청년의 비율
 자료: KINASA, KINASA 청년복지 지원조사 연구, 청년·전통세대청년, 한부모세대청년

2. 위기 청년과 청년복지

■ 청년이 복지의 대상인가? 취약 청년? 위기 청년?

- 미성년기 이후 이행기 과업을 달성하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주시인으로 자립하는 청년기에 다차원적이고 다층적인 취약성에 노출되면 전 생애·오징어 게임 징검다리 건너기에서 실패할 확률 증가



자료: 구글에서 오징어 게임 징검다리 건너기를 검색하여 캡처함(2022.12.15)

5

2. 위기 청년과 청년복지

■ 취약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청년복지



6

3. 청년 위기: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 지원대상으로서의 가족돌봄청년

-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
- 단,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



3. 청년 위기: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 지원대상으로서의 고립 vs. 은둔

- **고립**은 ①사회활동이 한치러 줄어(외부와의 사) 취약한 상태지만,
 - ②간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체계가 부재'하여 **사회적 관계 자본이 부족한 상황**
- **은둔**은 **사회적 관계 자본이 결핍되어 있으며**,
 - ③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④제한된 거주공간(방 또는 침실)에 '스스로를 가둔' 상황
- 단, 고립되거나 은둔하는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니트(NEET)와 구별

구분	경제활동 지표	사회관계 지표	외출 지표
니트청년	○ (경제활동없음)	× (미고려)	× (미고려)
고립청년	× (미고려)	○ (사회 관계 자본 부족 결핍)	○ (외출 낮거나 없음)
은둔청년	× (미고려)	○ (사회 관계 자본 결핍)	○ (외출 없음)

자료: 통계부(2018년)12차,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3. 청년 위기: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위기 청년 출현률

구분	가족돌봄			은둔			
	비례당	가족돌봄	중립률	전체	비례당	은둔	전체
2022	99.4	0.6		100.0	97.6	2.4	100.0
2024	98.6	1.5	0.6	100.0	94.8	5.2	100.0

주: 청년 위기율 추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청년복지

9

3. 청년 위기: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가족돌봄 및 은둔 동시 경험

(2022년)				(2024년)				
구분	가족돌봄			구분	가족돌봄			
	비례당	가족돌봄	전체		비례당	가족돌봄	전체	
은둔	비례당	97.0	0.6	97.6	비례당	91.5	1.3	94.8
	은둔	2.4	0.0	2.4	은둔	5.0	0.2	5.2
	전체	99.4	0.6	100.0	전체	98.6	1.5	100.0

주: 청년 위기율 추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청년복지

10

4. 위기 청년 지원 방향

첫째, 문제 해결

- 고립·은둔청년 → 사회기술 재학습과 사회적 관계 자본 회복
- 가족돌봄청년 → 의료·돌봄 서비스 적극 연계 및 이용으로 돌봄 부담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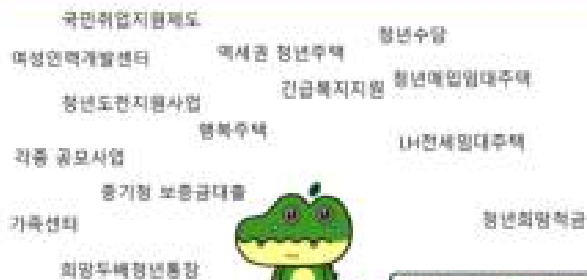
감기에는 감기약



4. 위기 청년 지원 방향

둘째, 위기로 유발되는 복합적 문제 해결 → 지원의 FULL PACKAGE!

제도도 지원기관도 많지만 물어볼 곳을 모르는 청년의 사례



자료: 김성민, 2024년. 지역 청년 취업 지원 사업(공공기관 청년 취업 지원 사업) 현장 사례(2023년)를 사례조사로 활용함.

4. 위기 청년 지원 방향

▶ 셋째, 청년의 자기 회복과 사회통합 → 또래다운 독립된 청년으로서의 주체적 삶 모색

동년배가 오미는 지역 공동체



오미 마을에서 '오미마을 청년센터'를 주제로 한 2022년 1월 14일 열린 워크숍

5. 위기 청년 지원 정책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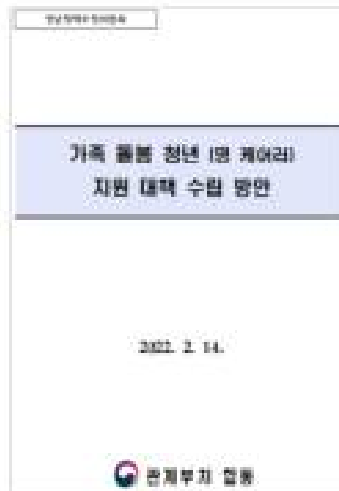
▶ 중앙행정기관의 위기 청년 지원, 첫 걸음



중앙행정기관 2022년 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대통령령 제29841호 「가족 돌봄 청년(영·장애아) 지원 대책 수립 방안」을 공포하였다.

간접 장애인 10만명 '영·장애아'의 교육, 보육은 어디 있었나?

간접 장애인 10만명 '영·장애아'의 교육, 보육은 어디 있었나? 간접 장애인 10만명 '영·장애아'의 교육, 보육은 어디 있었나? 간접 장애인 10만명 '영·장애아'의 교육, 보육은 어디 있었나? 간접 장애인 10만명 '영·장애아'의 교육, 보육은 어디 있었나? 간접 장애인 10만명 '영·장애아'의 교육, 보육은 어디 있었나?



5. 위기 청년 지원 정책 경과

● 중앙행정기관의 위기 청년 지원, 첫 걸음

청년의 고립·은둔 실태조사 (11.7.-8.)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21.12.13.)

17

5. 위기 청년 지원 정책 경과

● 중앙행정기관의 위기 청년 지원: (24-'25)시범사업 → (26-)제도화 및 전국 확대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지역 내로 지원, 돌봄, 상담, 정책 관련 정보 제공, 상담지원센터 개설
- 청년 센터에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상담 및 정책 지원센터 설치 -

정책일 * 기획조정처에서 정책 일괄 관리(2024)

가족돌봄지원	고립·은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말씀) 학교, 병원과 상시상담체계 구축 ② (가운) 가족·돌봄서비스 연계 ③ (청년) 당사자 지원(상담·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립)구 온라인 직거청년상담 플랫폼 등 ② (말삼)청년 고립·은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③ (말고)직무교육 및 행사지원

▼

정책 시각지대에 있던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최초의 공적 전담 지원체계 마련 추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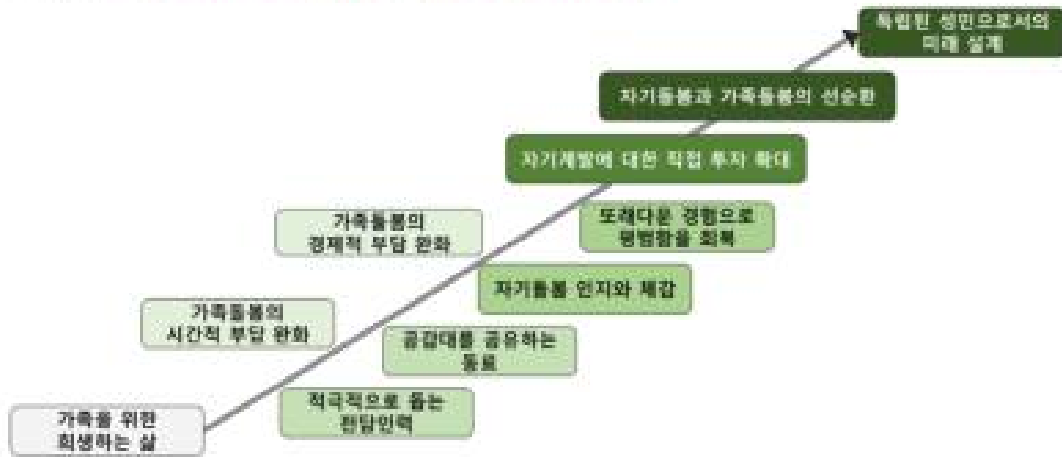
11월 13일

연월	주요 내용	비고
2024. 11. 13.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13일
2024. 11. 14.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14일
2024. 11. 15.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15일
2024. 11. 16.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16일
2024. 11. 17.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17일
2024. 11. 18.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18일
2024. 11. 19.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19일
2024. 11. 20.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20일
2024. 11. 21.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21일
2024. 11. 22.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22일
2024. 11. 23.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23일
2024. 11. 24.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24일
2024. 11. 25.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25일
2024. 11. 26.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26일
2024. 11. 27.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27일
2024. 11. 28.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28일
2024. 11. 29.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29일
2024. 11. 30.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30일

18

5. 위기 청년 지원 정책 경과

청년미래센터 1차년도 사업 참여 가족돌봄청(소)년의 변화와 자립 계획



자료: 청년미래센터, 2024년 1차년도 사업 참여 가족돌봄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4년 1차, 2024년 2차 설문조사 결과

5. 위기 청년 지원 정책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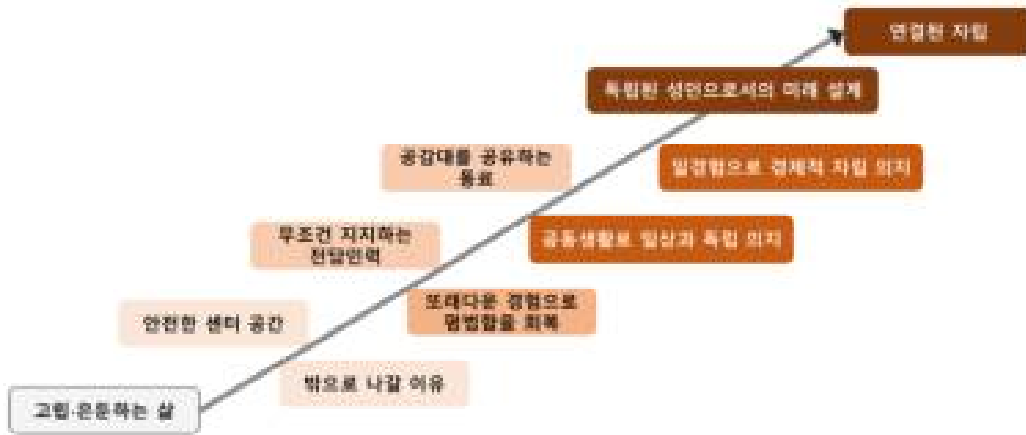
청년미래센터 1차년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성과 ('24.8.-'25.1.)



자료: 2024년 8월, 2025년 1월 청년미래센터 사업 지원 대상 가족돌봄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4년 1차, 2025년 1차 설문조사 결과

5. 위기 청년 지원 정책 경과

청년미래센터 1차년도 사업 참여 고립-은둔 청년의 변화와 자립 계획



자료: 청년미래센터 2023년 1차년도 사업 참여 고립-은둔 청년의 변화와 자립 계획 (2023.01.01~2023.12.31)

5. 위기 청년 지원 정책 경과

청년미래센터 1차년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성과 (24.8 - 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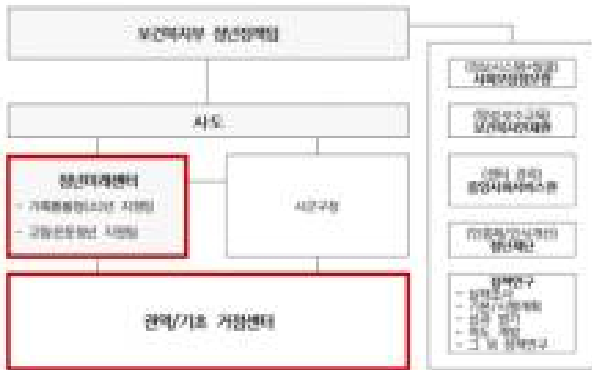


자료: 청년미래센터 2023년 1차년도 사업 참여 고립-은둔 청년의 변화와 자립 계획 (2023.01.01~2023.12.31)

6. 위기 청년 지원 정책 과제 I: 청년복지 제도화 안착

첫째, 위기 청년 지원 전달체계 수립: 속도 vs. 양질의 재계화

- ✓ 지역 간 격차 → 표준 사업지침 → 재현 가능성
- ✓ 임의성/한시성 → 신뢰성/안정성
- ✓ 공급자 중심 설계 → 수요자 중심 접근가능성



[목표4] 광역 및 권역/기초 사업 성과 모니터링 및 질 관리

[목표3] (27-28) 권역/기초 거점센터 지정 및 지역 사업 수행

[목표2] (26) 위기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 법률제26조(전문기관 인증)

[목표1] 광역 청년미래센터 단계적 전국 확대
 ◦ 법률제22조(전담조직의 지정·위탁)
 ◦ (24-25) 시범사업 4개소
 ◦ (26-27) 연차별 전국 확대

6. 위기 청년 지원 정책 과제 I: 청년복지 제도화 안착

둘째,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는 통합 지원체계

핀란드 'Outreach Youth Work'에 의한 통합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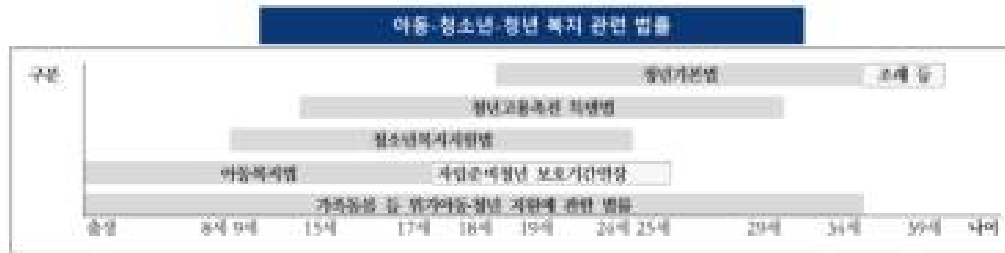
청년미래센터의 청년복지 허브화



6. 위기 청년 지원 정책 과제

▶ 셋째, 법률 패키지에서 청년복지 역할 명료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자 범위를 청년으로 특화 및 지자체 등 재량에 따른 대상 연령 설정
- + (1안)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위기 청소년 범위를 확대하되 필요시 복지부 사업으로 위탁
- (2안) 「아동복지법」일부 개정(안): 드림스타트 등 위기 아동(·청소년) 범위를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



자료: 김현아(2022), 「한국 사회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5

7. 위기 청년 지원 정책 과제II: 위기 청년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체계 구축

▶ 위기 청년이 서로 돕는 사회적 창업으로 자립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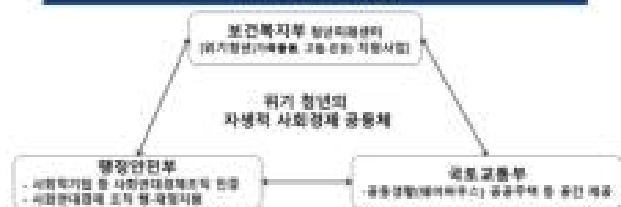
- 일례로, 탈고립·은둔 청년은 타인과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는 특성으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동료(peer) 지원이 효과적 (e.g. 정신장애안 동료지원가)
- 위기 청년의 사회적 기업 창업을 통해 위기(고립과 은둔, 가족돌봄)를 경력으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가능
- 궁극적으로 재고립·은둔을 예방하고 가족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지속가능한 자생적 공동체 형성

위기(고립·은둔) 청년이 서로 돕는 새로운 사회연대경제 모델



자료: 김현아(2022), 「한국 사회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기 청년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부처 협력체계(안)



2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동정책포럼

불확실성의 시대, 청년의 길을 묻다